

# 부동산 가격 급락 속 경매 낙찰가 '뚝' 절반 가량 '금융 빛도 못갚는다'

## 담보가 높은 제2금융권 추가 부실 우려

## '전세금 밑도는 낙찰' 세입자 피해도 속출

올 들어 불황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의 부동산 경매물건의 낙찰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부동산 낙찰 물건의 절반 가량이 채무금액을 밑돌면서 금융기관과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전남에서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은 4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0월(720건)

에 비해 35.6%(256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낙찰건수가 크게 줄었다.

또 광주·전남은 전체 낙찰물건 가운데 47.6%(221건)가 채권자의 배당 청구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물건 10건 가운데 5건은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 북구 우산동 C상가의 점포는 감정가(8천500만원)의 14.7% 수준인 1천247만원에 낙찰됐다.

또 이는 채권자인 N은행의 청구액

(3억2천376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해당 은행은 채권액의 96.2%(3억1천129만원)를 받지 못하게 됐다.

또 광주시 동구 충장로 G상가의 점포도 1천956만원에 낙찰돼 H은행의 채권액(1억1천940만원)의 86.6%(9천984만원)를 회수하지 못했다.

임차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의 B아파트는 감정가(1억9천만원)의 83.7%(1억5천890만원)에 낙찰되는 바람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어간 채됐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낙찰가가 선순위 금융기관의 청구액(2억7천600만원)을 크게 밑돌면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율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권 부실 확

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권 처리의 '마지노선'인 경매로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 기금의 경우 담보의 80~90%까지 돈을 빌려준 곳이 많은 점에서 향후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추가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엄격히 제한한 은행권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스카프·머플러로 멋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1층 패션잡화매장이 3일 닥스 스카프·머플러 코디쇼를 열었다. 광주점은 4일 MCM, 5일 페리엘리스, 6일 루이까조즈 코디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롯데광주점 제공)

# '대불산단 호황' 조선업이 이끈다

## 韓銀 분석... 207개 부품업체 수출 2,300만달러 64% ↑

영양 대불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호황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목포분부는 "지난 8월 대불 산단(외국인투자단지 포함) 생산액(1천115억원)은 운송장비와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5억원)에 비해 15.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다. 가동 업체 수도 207개로 전년 동월(181개)보다 14.4%(26개) 증가했고 수출도 2천300만 달러로 64.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인원도 8천851명으로 전년 동월(5천177명)에 비해 3천 674명으로 71% 증가하는 등 꾸준한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목포분부는 설명했다.

목포분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자금난을 겪기도 했지만 대불산단의 성장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선업종의 호황 덕분"이라며 "지난 5~7월까지 무서울 정도로 성장세가 8월 들어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절적 요인인듯 하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준한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목포분부는 설명했다.

목포분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자금난을 겪기도 했지만 대불산단의 성장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선업종의 호황 덕분"이라며 "지난 5~7월까지 무서울 정도로 성장세가 8월 들어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절적 요인인듯 하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기아차 '신차 효과' ... 월간 판매량 최대

## 10월 한달 14만대 팔려

기아차는 지난 10월 한달간 내수 3만3천609대, 해외판매 10만16천262대 등 13만9천871대를 팔아 올들어 최대 월간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창사 이래 최고치의 월간 판매량을 기록했던 작년 10월에 비해 0.7% 감소한 수치이지만 지난 9월보다는 44.7%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달 내수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33.9%, 지난 9월 대비 39.2% 증가하면서 2002년 11월 3만7천3대

를 넘어 이후 6년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고 시장점유율은 31.8%로 2개월 연속으로 30%를 넘어섰다.

이 같은 내수시장에서의 호실적을 올해 출시된 신차들이 이끌었다. 하반기에 출시된 쏘울과 포르테, 로체 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각각 4천404대, 5천588대, 3천906대 팔리면서 기아차 내수판매량의 41%를 차지했다.

올해 1~10월 기아차 내수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만2천121대보다 18.3% 증가한 26만2천780대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光銀 주택대출 금리 내린다

## 금융 위기 극복 차원 만기·거치기간 연장도

광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3일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거치기간 연장과 만기일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신용도나 담보물 자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만기 연장이 추진된다. 또 분할상환대출은 대출약정기간 3년의 1 범위에서 거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만기는 최장 3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4일 오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대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임원 연봉조정 등 자구책을 내용을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 부담완화는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대출자와 은행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향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 등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휘발유값 1년만에 1500원대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년 만에 1당 1천500원대로 내려섰다.

3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당 1천599.94원으로 전날보다 2.04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이 1당 1천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1천582.03원)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1당 1천500원대로 내려선 곳은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1천587.05원)와 충북(1천596.18원), 전북(1천570.88원), 전남(1천595.50원), 인천(1천587.58원), 광주(1천587.20원) 등 6개에 그쳤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금호, 내구성 향상 트럭용 타이어 KMA12 출시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는 마일리지와 내구성을 향상시킨 트럭용 타이어 KMA12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KMA12는 대형 덤프트럭 전용용 제품으로 타이어 구조뿐만 아니라 캄파운드 등에 금호타이어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적용됐다. 특히 최적의 형



크게 향상시켰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상·구조·재질 조합 설계로 타이어 내구성을 높였으며, 내마모성 또한 개선돼 마일리지를

## 수완지구

분 월드 메디컬 센터 양

지하1층, 지상5층

-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 ▶일일교통량 최대 승강장 옆
- ▶병·의원 입점 최적위치
- ▶수완지구 최고위치
- ▶경쟁력 있는 최저분양가격 (선점의 기회)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환영
- ▶2009년 3월 준공

-현장을 방문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반하고 가격에 놀라는 그곳  
월드메디컬센터

☎ 062) 952-1033, 010-7723-1033

## 초고유가시대 ~! 기름 한드럼에 30~40만원~!!

# 저탄소식 순간 전기 보일러 온수기

※난방, 온수 근심걱정 해결

홈페이지 : www.돌고래보일러.kr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용 시설에 최적함.

### 설치장소(난방/온수)

- 골인생활시설·식당·동심암농사실
- 숙박시설·모텔·펜션·콘도
- 교육·종교시설·미용실·시우나·스포츠시설
- 공업시설·가수시·공정난방 및 온수시설
- 복지시설·요양원·양로원·회관

### 제품의 특징

- 순간 가열방식과 저탄소방식의 장점을 혼합하여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열효율과 경제성
- 타제품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 많은 난방공간을 활용
- 전저온 온도조절의 편리함 기능과 5중 안전장치 내장
- 우레탄 단열처리로 뛰어난 보온성
- 순간가열식과 축열식을 접목하여 일괄 전기사용
- 기본 순간식 보일러 단열 보온

★참정연료인 전기에너지 사용으로 유가인상 및 유류카드걱정이 없으며 긴 수명과 장 고장 걱정이 없음

### 기름값대비 60~80% 절감효과

지금 즉시 신청 하십시오/시범주택 보급가격

MODEL	소비전력 (KW/h)	표준난방 (평)	설치·장비·배관·배관·연료·소비가격
ED50-1.5KW	1.5KW	18㎡ [5~7]	₩298만원
ED50-3KW	3KW	35㎡ [10~12]	₩398만원
ED100-6KW	6KW	70㎡ [20~25]	₩458만원
ED210-10KW	10KW	100㎡ [30~35]	₩505만원
ED210-16KW	16KW	140㎡ [45~50]	₩548만원
ED210-20KW	20KW	185㎡ [55~60]	₩598만원
ED430-30KW	30KW	270㎡ [80~90]	₩719만원
ED430-38KW	38KW	340㎡ [100~120]	₩825만원

(설치비 전액 3년간 분할)

생산업장 - 전문가가 직접 완벽 시공 - 설치고액

(설치 및 AS) **대우일렉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Yes!!!  
서비스 문의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88-0062  
가혹 처벌 소중함 고객들 위해 감동서비스

·특별문의 07514850 · 국제특목유선 PCT/KR2007/006534 · 특목유선 10-2007-0082-632

무료상담전화 **080-909-0088**  
구입문의 **010-9469-9373**